

제2장

예배와 성지, 심볼





예배의식

예배의 원리적 의의

예배는 타락한 인간이 하늘부모님을 중심한 참부모님의 한없는 사랑과 말씀의 은총 앞에 감사드리며 절대순종함으로써 사탄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하늘부모님을 중심한 선편이 되어 종적으로 부자관계를 회복하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의례이다.

예배는 참부모님의 사랑과 말씀을 통하여 원죄를 청산하고 중생·부활하여 참자녀가 됨으로써 하늘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창조본연의 이상세계를 이루게 한다.

천일국 예배는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고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늘부모님의 심정과 참사랑, 그리고 말씀 안에서 더욱 온전함을 얻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 통일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다.

천일국 예배는 궁극적으로 하늘부모님을 중심한 세계 대가족주의를 실현

하여 영원한 평화이상세계, 곧 천일국을 완성하기 위한 의례이다. 천일국 예배는 기원절 이후 새롭게 모색하는 예배로서, 외적으로는 천일국 위상을 갖추는 의례이며 내적으로는 완성적 시의시대에 있어서 삶의 기준이 되는 예배이며, 천일국 국민의 삶을 위한 기본적 의례이다.

특히 주일예배는 지난 한 주간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가오는 한 주간을 하늘부모님께 뜻 맞게 바치겠다는 자신의 결의를 다짐하는 시간이 된다. 참아버님께서 《뜻길》에서 예배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셨다.

“예배시간은 사탄의 쇠사슬을 끊어 가지고 하늘세계로 이끌어 오기 위한 싸움의 시간이다. 생명을 부활시키기 위하여 정성들이는 심각한 시간이니 절대로 예배시간을 어겨서는 안 된다. 예배시간에 잘못했다가는 은혜를 빼앗기고 간다.”
(227쪽)

가정연합에서는 전통적으로 매주 여러 가지 형태의 예배를 드린다. 예를 들면 새벽 5시 경배식과 일요일 오전 10시30분 대예배 외에도 다른 집회가 있다. 식구들이 소속교회 또는 자신이 원하는 교회의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 예배시간이야말로 하늘부모님의 뜻에 마음을 모으고 다가오는 일주일 위한 결단의 시간인 것이다. 한 축복가정에서 적어도 한 사람은 대표로 예배에 꼭 참석해야 한다.

어린 자녀들은 가능한 한 일찍부터 함께 주일학교에 참석시키도록 한다. 만약 주일학교가 너무 멀리 있다면 부모가 다니는 교회의 주일학교에 다니도록 한다. 《뜻길》에서 참부모님께서 주일예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예배 날에는 자녀들이 부러워서 따라오고 싶도록 부부가 정답게 같이 교회에 나오라.”(349쪽)

예배 준비

초창기 한국 식구들은 참아버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의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예배시간보다 일찍 성전에 모여 기도와 찬송을 하면서 미리부터 영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예배를 진행하는 사람은 물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다 내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참아버님께서는 외적인 형식이나 의식보다 예배의 내적인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다.

주일예배 때는 예배 시작 30분 전에 미리 도착하여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보통 주일예배는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하지만 상황에 따라 시간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예배의 지침

예배는 목회자와 축복가정들이 천일국의 위상을 갓출 수 있도록 많은 정성과 훈련을 통하여 진행돼야 한다.

설교자의 설교문은 식구들의 생명줄이다. 단상에 선 목회자는 참부모님을 닮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 섭리적 목표와 방향에 맞추어 기도문과 설교문을 준비하고 반복해서 연습해야 한다.

예배는 축복가정들이 주인이 되어 승리적 삶을 통해 하늘부모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구원과 참가정의 축복을 위한 예배는 물론 종족과 민족 그리고 이상사회 실현, 남북통일, 세계평화기원 등 국가와 세계를 위한 내용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해야 된다.

성가대는 최소한 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주일예배 전 선곡된 노래를 연습해야 한다. 성가대 조직이 어려울 때는 녹음성가를 활용해도 좋다.

광고는 주요 내용만 담임목사가 하고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통해 또는 각 부서 책임자를 통해 전달해야 한다.

헌금기도는 담임 목회자가 직접 하늘 앞에 봉헌하거나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식구가 해야 한다.

새 식구는 담임 목회자가 직접 환영하고 특별히 위로와 격려기도를 해줄 수 있다.

예배의 구성

1) 모심의 예배

천일국의 확실한 실체이신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중심하고 거행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모든 교회는 성전 안에 하늘부모님의 실체이신 참부모님의 존영을 모시고 밖에는 천일국의 국기를 게양한다.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 경배를 올린다.

천일국 국가를 부른다.

가정맹세를 외운다.

2) 보고의 예배

천일국 예배는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 실제적인 삶을 보고드린다.

깨달음의 삶이나 승리적 삶의 내용을 보고드린다.

3대 축복에 대한 삶의 실적을 하늘부모님께 봉헌한다.

3) 말씀의 예배

천일국 예배는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며 더욱 온전함을 얻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참부모님을 통하여 선포된 새생명의 말씀《원리강론》, 천일국 경전》을 훈독해야 한다. 설교자를 통하여 내려주신 말씀으로 참자녀로서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4) 축복의 예배

예배는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대신한 목회자를 통하여 축복을 받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모든 일이 하늘부모님의 온전하심같이 성취되도록 축복을 받고 새출발을 한다. 3대 축복을 이루기 위한 인간 책임분담을 완수하여 천일국 창건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

5) 사랑의 나눔

식구 모두가 함께 나누며 화동과 통합을 이루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예배는 하늘부모님의 심정과 참사랑을 중심한 하나의 가족공동체를 이루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

예배 순서

1) 주일 낮 예배순서

참아버님께서 직접 집례하시던 예배 형식은 다음과 같다.

- 준비기도
- 예배 선언
- 묵도
- 찬송(성가 또는 찬송가)
- 기도(참아버님)
- 찬송(1~2곡)
- 성경 봉독
- 기도(참아버님, 대표기도자)
- 설교
- 기도(참아버님)
- 찬송
- 전체기도(묵도 혹은 통성기도)
- 광고
- 폐회

예배를 시작할 시간이 되면 참아버님께서 일어서서 “묵도와 함께 예배를 시작한다.”고 말씀하셨다.

잠시 후 기도를 하시고 찬송을 인도하셨다. 때로는 노래 속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또 영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한 노래를 서너 번 반복해서 부르도록 인도하기도 하셨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시고, 또 찬송을 한두 곡 더 하고 나서 성경을 봉독한 다음, 다시 기도하신 후 대표기도자를 지명하여 기도하게 하셨다.

그 후 보통 몇 시간에 걸쳐 말씀을 하셨다. 말씀을 마친 후 기도를 한 다음 한 곡 이상의 찬송을 인도하신 뒤, 묵도 혹은 통성기도로 예배를 마치셨다.

2) 주일 낮 예배 제1안

제1안은 축복가정이 많은 교회로서 주일예배 시 승리적인 생활보고를 할 수 있는 가정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매주 그 주간에 있었던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인 삶 속에서 거둔 신앙의 승리를 보고한다. 축복가정 숫자가 많지 않아도 승리적인 삶의 보고가 가능하면 실시할 수 있다. 봉헌 헌금은 하늘의 무한하신 축복에 대한 감사로서 승리적 삶의 결실을 보고와 함께 드리는 정성의 예물이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과 교회의 형편에 따라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1) 모심의 예배

- 예배 선언
- 성가
- 기도
- 경배
- 천일국 국가

(2) 보고예배

- 보고기도

○ 삶의 보고(축복가정 중에서 한 가정이 한 주간 승리한 내용을 보고)

○ 격려말씀

○ 봉헌 성가

○ 봉헌 기도

(3) 말씀의 예배

○ 찬양

○ 참부모님 영상 말씀

○ 말씀 훈독

○ 설교 및 기도

○ 새 식구 환영

○ 광고

(4) 축복의 예배

○ 보냄의 성가

○ 보냄의 축도

○ 각자 기도

○ 찬양(성가대)

(5) 사랑의 나눔

○ 공동식사

3) 주일 낮 예배 제2안

제2안은 천일국시대와 탕감복귀시대를 연결하는 예배 순서이다.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중심한 모심의 예배와 말씀을 중시하고 일체가 되기 위한 상징헌제를 드림으로써 믿음의 기대를 조성하여 하늘편적 새 삶을 출발하게 하

는 의례이다. 축복가정의 승리적 삶의 보고가 쉽지 않을 경우와 열린 예배와 같이 새로운 식구가 많을 경우에는 제2안의 예배순서로 한다. 이것 역시 시대적 상황과 교회의 형편에 따라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1) 모심의 예배

- 예배 선언
- 찬송
- 기원
- 경배
- 천일국가 제창
- 가정맹세
- 보고기도

(2) 말씀의 예배

- 영상말씀
- 찬양
- 말씀훈독
- 설교
- 기도

(3) 봉헌의 예배

- 새 식구 환영
- 봉헌찬송
- 봉헌기도
- 광고

(4) 축복의 예배

- 결단의 찬송
- 축도
- 개인기도

(5) 사랑의 나눔

- 공동식사

4) 수요 밤예배

수요 밤예배는 보다 세밀한 신앙지도를 하거나 진리를 깨닫기 위한 예배로서, 연중 예배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교육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 예배 선언
- 찬송
- 경배
- 보고기도
- 훈독
- 말씀 및 기도
- 광고
- 찬송
- 기도
- 폐회

훈독가정교회 예배

축복가정은 신종족메시아 활동을 하면서 전도와 축복을 통해 인연된 회원을 관리하고 신앙화하기 위해 다양하게 산수원 산악회, 봉사활동, 문화센터 운영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훈독가정교회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힘쓰며 다음과 같이 예배나 모임을 진행한다.

- 예배(개회) 선언
- 찬송
- 경배(생략 가능)
- 보고기도
- 말씀훈독
- 말씀 및 기도
- 찬송
- 기도

성전봉헌예배

성전봉헌예배는 참석자 모두가 정장을 하고 참석하도록 한다. 예배 식순은 참석자들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경과보고에 앞서 영상물을 준비하여 시청할 수도 있으며 격려사와 축사, 축가 등도 1인 이상 할 수 있다. 이웃이나 지역사회 대표, 건축에 관련된 사람들을 초청하여 성대히 거행하는 것이 좋다.

- 식전행사-성별, 테이프 커팅, 축도

- 예배 선언
- 천일국가(또는 성가)
- 경배
- 보고기도
- 경과보고
- 환영사
- 공로패 수여
- 격려사
- 축사
- 꽃다발 증정
- 말씀
- 축도
- 케이크 커팅
- 억만세 삼창
- 광고

헌금(십일조)

십일조는 교회를 통해 하늘부모님께 각자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하는 성경상의 중요한 하나의 전통이다. 이는 가정연합에서도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신앙생활의 기본적 의무의 일부로 지키고 있다.

이상적으로는 하늘부모님의 섭리적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우리 자신의 가족을 포함해서)이 제물로 바쳐지고 희생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 앞에 모

든 것을 아낌없이 바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은 또한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원리이기도 한다.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세계적인 섭리를 위해 헌금을 하는 것은 우리의 첫 번째 의무이다. 《뜻길》을 보면 십일조에 대한 참아버님의 말씀이 있다.

“십일조는 선택된 자녀들의 기본 도리이다. 하나님의 수인 1수를 드림으로써 9수까지도 드렸다는 조건이 세워지며, 이 10수의 1수는 나머지 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327쪽)

“주일은 십일조의 날이니 나의 날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명령대로 복종할 날인 것이다. 하늘의 것을 내 것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 죄다.” (327쪽)

참아버님께서는 10분의 3을 하늘부모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투자할 것을 기대하신다고 하셨다. 10분의 1은 교회를 위해, 그다음 10분의 1은 국가를 위해, 그리고 남은 10분의 1은 세계를 위해 바쳐야 한다고 하셨다. 2006년 6월 13일 ‘천일국은 태평성대의 이상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천일국 백성은 누구나 하늘 앞에 인류의 복지와 평화를 위한 기금 모금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의 형식이 아닌 성금으로 수입 중 10의 3조를 국가 앞에 먼저 바치고 사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하늘 앞에 바치는 심정의 봉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529-246, 2006.06.13)

교회에서 식구들로부터 십일조를 받은 경우 그 가운데서 다시 십일조를 떼어 교구로 보내고, 교구에서는 또다시 교구 전체 십일조 가운데 십일조를 떼어서 협회로 보낸다. 협회에서는 같은 요령으로 십일조를 세계본부로 헌금한다. 십일조는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1) 시간적인 십일조

참아버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금전적인 십일조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시간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 하늘부모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힘쓰는 식구들로서는 꼭 행해야 할 책임의 한 부분이다. 교회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시간은 하늘 부모님께 바치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2) 경제적인 십일조

식구들은 급여나 사업의 이익금 등 수입이 들어왔을 경우 최소한 그 10분의 1을 소속 교회에 헌금한다. 사소한 수입이 있었을 경우는 식구 각자의 판단에 따라 헌금하면 된다.

3) 명절, 행사 및 감사 헌금

일반 식구들이나 축복가정은 주요 명절에 특별헌금을 한다. 헌금 액수는 각자의 판단에 따르지만 섭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숫자를 참조하여 액수를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헌금 액수가 아니라 헌금을 하는 자신의 마음가짐이다.

모든 식구들은 주요 명절 행사를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참부모님을 위해 갖는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참부모님께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든 하

지 않은 간에 정해진 헌금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헌금은 무조건 드리는 것이지 행사의 참석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니다. 식구들로부터 받은 행사 헌금은 모두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일학교

주일학교는 필요에 따라 개설한다. 지방교회에서도 할 수 있다면 개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일학교는 대예배 한 시간 전에 시작한다. 그러나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대예배 중이나 후에 할 수 있다. 보통 나이에 따라 각 반을 편성하지만, 학생 수가 적을 경우에는 5, 6세 차이가 되는 아이들을 한 반에 같이 편성할 수 있다.

교재는 개인과 연령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으나 몇 가지 제시된 주일학교 중심 과제에 설교의 주제를 일치시키고 말씀의 내용을 인용하며, 지도 효과를 내기 위해 통일원리에서 실례를 들고 참부모님의 생활, 개인 신앙의 간증 등을 첨가하여 구성한다.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학교 선생들과 교회 지도자가 모여 다음 주일의 설교와 공부 시간에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 의견을 나누도록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교회 지도자는 어린이들의 영적 성장을 계속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성가

성가의 의의와 목적

새로운 신앙은 새 삶과 중생, 그리고 변화를 창조한다. 이러한 중생을 통해 종교는 새로운 가사와 멜로디를 입힌 새 노래를 창조하고, 그러한 새 노래는 우리 삶과 문화의 결실이 된다.

성가는 신앙의 산증인이며 한 곡의 노래가 완전한 설교이다. 식구들이 모여 성가를 부를 때는 환경이 변화되고 일체감이 생겨난다. 사탄적인 힘이 소멸되고, 모임의 영적인 분위기가 밝아지고 깨끗해지며 신성화된다. 성가를 부를 때 식구들은 내적으로 정화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더 기뻐하기 위해서든, 더 엄숙해지고 싶어서든 성가를 부르면 하늘부모님과 보다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성가는 영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정연합 식구들은 기도회, 경배식, 주일예배, 기타 모임에서 늘 성가를 부르고 있는데, 혼자서나 작은 모임에서

도 성가를 부르고 연주해도 좋다. 성가는 각기 고유한 뜻을 지니고 있으며 깊고 신령한 뜻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가를 부를 때는 가사에 초점을 맞춰 분위기를 조성하며 불러야 한다.

성가의 역사

성가는 참부모님의 모든 고통과 승리의 역사를 묘사한다. 참아버님께서는 명상과 깊은 기도를 통하여 많은 성가를 작사·작곡하셨다. 참아버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성가를 지어 하늘부모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또 식구들이 부를 수 있게 하셨다. 1956년 10월 4일 처음으로 성가집이 정식 출판되었다. 1978년에 들어오면서 모든 곡을 4부곡으로 편곡하여 공용 성가집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초창기 성가

1) 승리자의 새노래 (작사 참아버님, 작곡 김덕진)

참아버님께서 1946년 6월 6일 북한 평양에 도착하신 후 경창리에 집회소를 마련하고 식구들을 모아 예배를 보셨다. 1946년 8월 11일 대동보안서에 구속되어 100일간 수난을 당하시고 11월 21일 석방되셨다. 1947년 영계 43일 노정 승리 이후 이 노래를 지으셨다. 특히 ‘새 뜻’을 강조하셨다.

2) 성령의 새노래 (작사 참아버님, 작곡 김덕진)

참아버님께서 1948년 2월 22일 북한 내무서에 구속되어 5년형을 받으시고

홍남감옥에 복역하시던 중 1950년 10월 14일 유엔군의 역습으로 출감, 자유의 몸이 되신 지 20여일 만인 11월 초에 평양에서 이 노래를 지으셨다. 새출발의 표시가 전 가사 가운데 넘쳐흐를 뿐만 아니라, 이 노래를 통해 '새 뜻' 성취에 거시는 참아버님의 결의와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3) 영광의 은사 (작사 참아버님, 작곡 평양사범학교 교가 차용)

이 성가는 '성령의 새노래'와 작사된 때와 장소, 성격이 모두 같다. 새 세계, 새 역사 건설에 대한 감격과 희망이 약동하고 있다. 본 성가의 곡은 편의상 평양사범학교 교가 곡조를 차용했다.

4) 어둠에 싸인 세력 (작사 참아버님, 작곡 김덕진)

이 성가는 1951년 부산 범넛골 토담집을 지으셨다. 참아버님께서 수첩에 적어 두신 것을 김원필씨가 발견하여 옮겨 두었다가 후일 공개했고, 1954년 작곡하게 되었다. 이 성가는 다른 것과는 달리, 그 당시 사탄적 세력의 도전을 받던 참아버님의 심정과 철저히 악한 죄인의 입장에서 구원받아 가는 성도의 심회와 신앙적 진면목이 여실히 표현되어 있다.

5) 복귀의 동산 (작사 참아버님, 작곡 김덕진)

1953년 3월 부산 수정동에서만 세 번째로 이사하신 5통 437번지에서 쓰신 것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안 갈 수 없는 복귀노정이지만 소망의 세계를 헤아릴 때 오히려 감격과 맹세가 넘쳐나는 것을 잘 표현한 성가이다. 뜻길을 가는 성도들의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다.

6) 성원의 은사 (작사 참아버님, 작곡 김덕진)

이 성가가 만들어진 경위는 ‘복귀의 동산’과 거의 같다. 그러나 이 성가는 내용이 근본적이면서 단순한 편으로, 하늘부모님께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또 하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큰 은사 앞에 보답하려는 뜻이 잘 나타나 있다.

7) 원리용사가 (작사 참아버님)

1959년 2월 17일 제1회 전국전도사수련회 참가자들을 위해 참아버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8) 하늘의 용사 (작사 참아버님)

1960년 여름부터 동·하계 두 차례씩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지방 전도가 시행되어 3회째 되던 1961년 전국 40일 전도에 파송된 식구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아버님께서 친히 지으셨다. 이 노래를 널리 부르게 하심으로써 모두 하늘의 용사로서 자긍심을 지니고 활동하도록 고무하셨다. 처음에는 ‘대구시민의 노래’의 곡을 차용해 부르다가 1978년 성가 개편작업을 계기로 작곡하게 되었다.

9) 동산의 노래 (안신영 편 ‘좋은 노래’ 책에서)

양윤영 여사(이화여대 음악교수)가 대학생 하령회를 지도하려고 준비하면서 ‘좋은 노래’ 책을 뒤적이다가 이 곡이 마음에 들어 참아버님과 식구들 앞에서 불렀는데, 이 노래를 듣고 모두들 좋아해서 그때부터 간단없이 우리 식구들이 부르게 되어 통일교회의 대표적인 노래가 되었다.

10) 성화청년회가 (작사 유광렬, 작곡 김덕진)

1954년 3월 27일 성화청년회를 조직하면서 회가를 공모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뽑힌 곡이다.

11) 내 가오리다 (작사 황환채, 작곡 김덕진)

7·4사건으로 참부모님께서 서대문형무소에 입감되시자 청년 식구들끼리 장기합숙 철야기도에 돌입했는데, 이때 암울한 상황에서도 ‘나는 죽는 날까지 이 신앙을 지키고 전파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싸워 나가겠다.’는 결의로 지은 노래로, 참아버님께서 출감하시자마자 바로 불러 올렸다.

12) 고난과 새생명 (작사 유효원, 작곡 김덕진)

유효원 전 협회장이 참아버님과 함께 7·4사건으로 옥고를 치르면서 성경한 모퉁이에다 적어 두었다가 출감 후 손질하여 곡을 붙인 것이다. 혹독한 수난의 생활 속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참아버님을 생각하고 하늘부모님의 섭리역사와 미래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더욱 굳어지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

13) 나는 제물 (작사·작곡 유효민)

북귀섭리역사에서 제물노정을 가는 식구들의 심각한 자각과 결심, 그리고 맹세가 가사 전반에 넘쳐흐르고 있다.

14) 맹세 (작사·작곡 양윤영)

참아버님께서 “이 노래는 양윤영 일대의 역작이다.”라고 칭찬하신 노래로서 7·4사건 후 내심 멀어질 수 있는 마음을 스스로 달래며 뜻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마음으로 지은 것이다. 이 노래는 1956년 1월 15일 완성되어 그해 참아버님 탄신일에 불려졌다.

15) 성화용사의 노래 (작사 김상철, 작곡 김덕진)

1958년에 지은 것으로 ‘삼천리 금수강산’은 ‘아버님의 거룩한 땅’이며 ‘삼천만 백의겨레’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뜻이 강조되어 한국과 하늘부모님의 구원섭리의 연결성이 강조되어 있다.

16) 한숨을 걷어차라 (작사·작곡 미상)

이 노래는 일제 압박시대에 우국지심을 노래한 것으로, 은연중 불러 내려 오던 곡이다. 참아버님께서 큰 뜻을 품고 위난을 극복해 나오시는 동안 많이 부르신 것으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창립 초기부터 참아버님께서 교회 집회 때에 자주 부르시자 식구들이 모두 함께 불러 일반화되었다.

17) 빛나는 조국 (작사 이월성, 작곡 애향가 곡 차용)

한반도를 중심삼고 하늘부모님의 창조이상이자 구원의 역사인 완성섭리가 이루어진다는 데 대한 환희와 희망과 행진의 의미가 넘치고 있다.

18) 복귀의 심정 (작사 이용희)

1950년 중반경 야목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이때 나이 어린 소녀였던 이용희 씨가 하늘부모님의 서러운 심정을 체휼하면서 많은 기도를 해오다가 이 가사를 완성했다고 한다. 처음부터 ‘어머님 은혜’(양주동 작사, 이흥렬 작곡)의 곡을 차용해 불러오다가 1978년 봄에 성가의 전반적인 개편작업을 계

기로 독자적인 곡을 갖게 되었다.

19) 내 뒤편에 태인 십자가 (작사 유광렬, 작곡 김두완)

유구한 복귀섭리역사 가운데 있었던 인간의 불신과 하늘부모님의 설움,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참고 견디어 최후 종착역까지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굳은 결의가 그려져 있다. 후렴 ‘십자가 지고서 가고야 말겠네’에 이 노래의 주제가 깃들어 있다. 흔히 지방 일선의 식구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스스로 채찍질하고 승리를 기약하며 재기하곤 했다.

20) 고난의 예수 (작사·작곡 양윤영)

참아버님께서 1955년 7·4사건의 수난의 길을 가신 후 식구들 모두 정상을 되찾아 전도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사자에게 예수님이 갯세 마네동산에서 최후기도를 하는 장면에서부터 운명하는 장면까지 생생하게 환상으로 나타나면서 예수님의 심정이 그대로 체휼되었다는 것이다. 그 장면과 그때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21) 부름 받은 몸 (작사 이호윤, 작곡 박재훈)

6·25전쟁의 혼란 와중에서 하늘 앞에 부름 받고 소명감을 느끼어 어디든지 가겠다는 불타는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주님을 위로하는 작사자의 심정이 잘 표현돼 있다. 기독교의 일반 성가이다.

22) 내 어린양 (작사 박재, 작곡 박재훈)

기독교의 성가로 작사자와 작곡자는 서로 형제이다. 우리 교회에서도 자주

불러 신앙심을 돋우고 있다.

23) 성화청년 행진곡 (작사 황원진, 작곡 김덕진)

1955년 4월경 수난이 시작될 무렵 작사자 황원진씨가 입교하여 수개월 교회에 머물면서 이 노래를 지었다. 가사 자체가 새 세계에 대한 이상과 역사 담당자들로서의 기상, 그리고 소망에 넘쳐서 달려 나가는 청년들의 패기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24) 영광의 날 (작사·작곡 양윤영)

1957년 12월 작사자가 꿈속에서 들려오는 음악을 꿈에서 깨어나 곧바로 회상하며 오선지에 옮겨 놓은 것이다. 하늘의 영광을 찬양하고 축복의 한날을 기다리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25) 사랑의 봄동산 (작사·작곡 양윤영)

앞날의 희망에 부풀어 있는 소년소녀들을 주제로 한 곡이다. 참부모님 성혼식에서 이 노래가 식구들에 의해 합창되었고, 그 후 축복 때마다 신랑 신부 입장 시에 이 노래가 불려지고 있다.

26) 새 에덴의 노래 (작사·작곡 김서정)

1927년부터 1930년 사이에 지어진 영화 주제가이다. 당초 일반 노래였는데, 1946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가 깨끗하고, 에덴의 동무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두들 춤추고 노래를 불러 다 함께 즐기자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참부모님 애창곡

참부모님께서는 각종 집회에서 직접 노래를 부르시거나 식구들을 불러내어 노래를 시키면서 분위기를 돋우셨다.

‘사랑해’ ‘엄마야 누나야’는 명절 행사 때나 화동회에서 양위분이 함께 부르거나 식구들과 합창을 한 노래이다. 참부모님은 본향을 잃어버린 인류의 구원을 생각하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가사가 담긴 노래(가고파, 고향무정, 향수)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봄에 피는 새싹처럼 새생명과 희망이 약동하는 봄노래(봄치녀, 사월의 노래)도 즐겨 부르셨다.

참아버님께서는 여수 청해가든에서 해양섬리를 주관하시면서 ‘벚노래’를 일본 식구들과 열창하시고, 일본 노래 ‘후루사토’ ‘아카돈보’도 식구들과 함께 합창하시곤 하셨다. 외로운 뜻길을 상징하는 독도에 대한 가사가 담긴 ‘홀로 아리랑’과 변함없는 충정을 나타내는 ‘천년바위’도 좋아하셨다.

그리고 성화 직전에는 손주님들을 무릎이나 탁상 위에 앉혀 놓고 ‘할미꽃’을 함께 부르며 즐거워하기도 하셨다. ‘대한팔경’ ‘조국찬가’ 등을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염원하셨다.

참어머님께서는 참아버님 성화 이후 욕심을 버리고 중단 없는 전진을 권고하는 노랫말이 있는 노래를 즐겨 부르도록 인도하셨다. 특히 ‘무조건’ ‘밀어붙여’는 주요한 대회 때나 화동회 때 청년학생들이 춤과 더불어 힘차게 불러 천일국 안착의 응원의 노래가 되었다.



성지

성지의 역사와 의미

1965년까지는 참아버님께서 몸소 성지를 세우지 않으셨다. 그러나 1963년 1월 1일 한문으로 ‘성지(聖地)’라고 쓰시고 ‘처음에는 상징적으로 성지를 찾아 하늘부모님 땅으로 복귀하고, 나중에는 본향을 복귀하신다.’는 경위와 계획에 관해서 식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

원래 모든 땅은 하늘부모님의 창조물이고 하늘부모님께 속해 있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늘부모님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셨다. 1960년 참부모님의 성혼식 이후 성지를 정하심으로써 비로소 하늘부모님께 땅을 되찾아드릴 수 있게 되었다.

참아버님께서는 하늘부모님의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 하늘부모님의 대신자로서 어떤 지역을 성지로 택정하시고, 또한 성지 택정을 지시하실 수도 있다. 이것은 아담이나 예수님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부모님

의 제2축복을 제3축복에 앞서 복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천국만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성지는 하늘의 소유지이다. 참아버님은 최소한도 성지를 사탄의 주관권에서 하늘부모님의 정당한 소유권으로 돌려드렸다. 성지는 상징적으로 하늘부모님의 영토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 성지가 전국적으로 그 수가 늘어나서 궁극에는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도록 해야 한다.

성지는 한 나라의 도시를 대표하는 지역이며, 그 지역은 하늘부모님께서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늘부모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잘 들으실 수 있는 장소이다. 성지를 통해서 하늘부모님은 상징적으로 그 지역을 자신의 소유지로서 복귀하신다.

첫 성지는 참아버님께서 성지를 실제로 설정하시기 전에 몇몇 제자들에게 지시하여 세우셨다. 그 성지의 위치와 택정된 날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62년 10월 5일 : 서울 북쪽, 삼청공원(구진봉). 서울 중앙(서울의 중앙성지), 남산의 장충공원(참아버님께서 기도하셨던 공원).
- 1962년 10월 6일 : 서울 남쪽, 흑석동 공원. 서울 동쪽, 태릉(국유림).
- 1962년 10월 7일 : 서울 서쪽, 인왕산.

참부모님에 의한 성지 택정

참아버님께서는 1965년 1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세계를 순회하시며 39개국에 성지를 택정하셨다. 참아버님께서는 한국에 돌아오셔서 전국 주요

지역에 성지를 택정하시고, 1966년 1월 1일에 청과동 전본부교회를 포함해 7개의 주요 성지를 서울에 택정하시면서 전 세계에 걸쳐 120개 성지를 축복하였다.

1) 성지의 관리와 이용

참아버님께서는 가능한 한 식구들이 성지에서 자주 기도할 것을 강조하셨다. 성지는 신성한 곳이다. 성지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부모님의 땅을 복귀함으로써 하늘부모님을 위로해 드리는 역사적인 기대와 관련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지에서 드린 기도는 보다 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성지의 의의를 이해하고 성지는 다른 장소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보다 겸허하게 하여 하늘부모님을 더욱 가깝게 느껴야 한다.

2) 참아버님에 의해 택정된 성지 120곳

순	국 가	도 시	장 소	택정일
1	일본	도쿄	메이지신궁(明治神宮) 성지, 현 요요기공원	1965.01.31
2	일본	나고야	히가시아마(東山) 성지	1965.02.02
3	일본	오사카	오사카성(大阪城) 성지	1965.02.03
4	일본	다카마쓰	야시마공원(屋島公園) 성지	1965.02.04
5	일본	히로시마	히로시마성터(広島城跡) 성지	1965.02.05
6	일본	후쿠오카	니시공원(西公園) 성지	1965.02.06
7	일본	삿포로	마루야마공원(円山公園) 성지	1965.02.08
8	일본	센다이	아오바성(青葉城) 성지	1965.02.10
9	미국	샌프란시스코	트윈 피크스(Twin Peaks)	1965.02.19
10	미국	로스앤젤레스	그리피스 파크(Griffith Park)	1965.02.25

순	국 가	도 시	장 소	택정일
11	미국	휘트니 산	휘트니 산(Mt. Whitney)	1965.02.25
12	미국	데스밸리	데스밸리(Death Valley)	1965.02.25
13	미국	라스베이거스	이스트 워싱턴가 555	1965.02.25
14	미국	피닉스	애리조나주립대학교	1965.02.26
15	미국	앨버커키	루즈벨트 파크(Roosevelt Park)	1965.02.27
16	미국	덜러스	화이트 록 레이크 파크(White rock Lake Park)	1965.02.28
17	미국	오클라호마	링컨 파크(Lincoln Park)	1965.03.01
18	미국	캔자스시티	파크 시티(Park City)	1965.03.03
19	미국	세인트루이스	포레스트 파크(Forest Park)	1965.03.04
20	미국	파두카	노블 파크(Noble Park)	1965.03.04
21	미국	맴피스	브룩스 뮤지엄 오브 아트(Brooks Museum of Art)	1965.03.05
22	미국	리틀록	워 메모리얼 파크(War Memorial Park)	1965.03.06
23	미국	잭슨	잭슨 줌로지컬 파크(Jackson Zoological Park)	1965.03.06
24	미국	뉴올리언스	시티 파크(City Park)	1965.03.06
25	미국	모빌	찰스 우드 재패니즈 가든 (Charles Wood Japanese Garden)	1965.03.07
26	미국	탬파	로리 파크 동물원(Lowry Park Zoo)	1965.03.08
27	미국	마이애미	트로피컬 파크(Tropical Park)	1965.03.08
28	미국	사배나	포사이스 파크(Forsyth Park)	1965.03.10
29	미국	콜롬비아	얼우드 파크(Earlewood Park)	1965.03.11
30	미국	레이리	도로시아 딕스 주립병원 (Dorothea Dix State Hospital)	1965.03.11
31	미국	리치먼드	먼로 파크(Monroe Park)	1965.03.11
32	미국	마틴스버그	버클리 카운티 워 메모리얼 파크 (Berkeley County War Memorial Park)	1965.03.12
33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웨스트 론 (United States Capitol West Lawn)	1965.03.14

순	국 가	도 시	장 소	택정일
34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엘립스(White House Ellipse)	1965.03.14
35	미국	볼티모어	두루이드 힐 파크(Druid Hill Park)	1965.03.15
36	미국	월빙턴	브랜디와인 파크(Brandywine Park)	1965.03.15
37	미국	필라델피아	페어마운트 파크(Fairmount Park)	1965.03.16
38	미국	트렌톤	캐드월러더 파크(Cadwalader Park)	1965.03.17
39	미국	뉴욕	센트럴 파크(Central Park)	1965.03.19
40	미국	뉴헤이븐	웨스트 록 리지 주립공원 (West Rock Ridge State Park)	1965.03.19
41	미국	프로비덴스	로저 윌리엄스 파크(Roger Williams Park)	1965.03.19
42	미국	보스턴	보스턴 커먼스(Boston Commons)	1965.03.19
43	미국	포쓰마우스	굿윈 파크(Goodwin Park)	1965.03.19
44	미국	키트리	존 폴 존스 유적지(John Paul Jones Historic Site)	1965.03.19
45	미국	브래틀보로	더 커먼(The Common)	1965.03.20
46	미국	클리블랜드	웨이드 파크(Wade Park)	1965.03.20
47	미국	디트로이트	벨 아일랜드 파크(Belle Isle Park)	1965.03.21
48	미국	하몬드	해리슨 파크(Harrison Park)	1965.03.21
49	미국	시카고	그랜트 파크(Grant Park)	1965.03.21
50	미국	매디슨	호이트 파크(Hoyt Park)	1965.03.22
51	미국	세인트폴	코모 리저널 파크(Como Regional Park)	1965.03.23
52	미국	파아고	아일랜드 파크(Island Park)	1965.03.23
53	미국	수폴즈	셔먼 파크(Sherman Park)	1965.03.23
54	미국	수시티	그랜드뷰 파크(Grandview Park)	1965.03.23
55	미국	링컨	메모리얼 파크(Memorial Park)	1965.03.24
56	미국	사이언	라이온스 파크(Lions Park)	1965.03.24
57	미국	덴버	시티 파크(City Park)	1965.03.25
58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빅 필드 파빌리온 슈거하우스 파크 (Big Field Pavilion, Sugarhouse Park)	1965.03.26

순	국 가	도 시	장 소	택정일
59	미국	보이시	줄리아 데이비스 파크(Julia Davis Park)	1965.03.26
60	미국	미줄라	그리노 파크(Greenough Park)	1965.03.27
61	미국	시애틀	수워드 파크(Seward Park)	1965.03.28
62	미국	포틀랜드	마운트 테이버 시티 파크(Mount Tabor City Park)	1965.03.29
63	미국	유진	헨드릭스 파크(Hendricks Park)	1965.03.29
64	캐나다	오타와		1965.07.02
65	파나마	파나마시티		1965.07.04
66	콜롬비아	보고타		1965.07.05
67	칠레	산티아고		1965.07.06
68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1965.07.06
69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1965.07.09
70	포르투갈	리스본		1965.07.11
71	스페인	마드리드		1965.07.13
72	영국	런던	켄싱턴 가든(Kensington Gardens)	1965.07.15
73	덴마크	코펜하겐		1965.07.20
74	노르웨이	오슬로		1965.07.24
75	스웨덴	스톡홀름		1965.07.24
76	독일	베를린	티어가르텐(Tiergarten)	1965.07.26
77	독일	프랑크푸르트	그뤼네부르크 파크(Grüneburg Park)	1965.07.29
78	독일	에센		1965.08.05
79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폰델 파크(Vondel Park)	1965.08.08
80	벨기에	브뤼셀	라켄 파크(Laken Park)	1965.08.09
81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1965.08.09
82	프랑스	파리	상 드 막스(champs de mars)	1965.08.10
83	스위스	제네바	트렘블레 파크(parcs Trembley)	1965.08.13
84	스위스	알프스산	레 디아블러레(Le Diablerets)	1965.08.13
85	리히텐슈타인	파두츠		1965.08.15

순	국 가	도 시	장 소	택정일
86	오스트리아	비엔나	라트하우스 파크(Rathaus Park)	1965.08.16
87	이탈리아	로마	보르게제 파크(Borghese Park)	1965.08.19
88	바티칸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 앞 오벨리스크 성지	1965.08.20
89	그리스	아테네		1965.08.22
90	이집트	카이로		1965.08.25
91	요르단	암만		1965.08.29
92	요르단	게르짐		1965.08.31
93	이스라엘	예루살렘	겟세마네동산 옆	1965.08.31
94	요르단	헤브론	헤브론상수리나무 밑	1965.09.01
95	시리아	다마스쿠스		1965.09.03
96	레바논	베이루트		1965.09.05
97	이란	테헤란		1965.09.06
98	인도	델리		1965.09.08
99	싱가포르	싱가포르		1965.09.15
100	말레이시아	조호르		1965.09.15
101	태국	방콕		1965.09.17
102	베트남	사이공		1965.09.19
103	필리핀	마닐라		1965.09.22
104	홍콩	홍콩		1965.09.25
105	대만	타이베이	타이베이 식물원	1965.09.28
106	한국	춘천	봉의산 성지	1965.12.08
107	한국	청주	당이산 성지	1965.12.11
108	한국	대구	달성공원 성지	1965.12.12
109	한국	부산	범나들(눈물의 바위) 성지	1965.12.14
110	한국	광주	사직공원 성지	1965.12.17
111	한국	전주	화산 성지	1965.12.18
112	한국	대전	보문산공원 성지	1965.12.19

순	국 가	도 시	장 소	택정일
113	한국	수원	화성 서장대 성지	1965.12.22
114	한국	서울	구진봉 북악스카이웨이 옆 공군기지 성지	1965.12.31
115	한국	서울	인왕산 성지	1965.12.31
116	한국	서울	흑석동 국립묘지 호국지장사 인근 성지	1965.12.31
117	한국	서울	태릉 성지	1965.12.31
118	한국	서울	남산 약수터 인근 성지	1966.01.01
119	한국	서울	도봉산	1966.01.01
120	한국	서울	전본부교회	1966.01.01



심볼

통일교회 심볼

통일교회 심볼은 1965년 1월 서울 청파동 전본부교회에서 참아버님의 구상에 의해 제정되었다.

통일교회 심볼은 인간과 피조세계가 하늘부모님의 창조이상을 완성한 이상천국을 상징하는 것이다.



통일교회 심볼의 중심 원은 하늘부모님과 진리, 생명, 그리고 빛을 상징한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중심 원으로부터 전 우주의 12방향으로 뻗어 있다. 이 12라는 수는 3대상목적을 완성한 4위기대의 완성 12수와 4계절을 중심한 1년 12개월, 그리고 인간의 열두 가지 형(型)을 나타내고 있다.

역사적으로 12수는 하늘부모님의 섭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예

를 들면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두셨는데, 그런 점에서 이 심볼은 진리가 12방향으로 퍼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참아버님께서는 천국의 기본 구조도 12지파, 열두 가지 인간형과 같이 12수 기본체제로 되어 있다고 하셨다.

바깥 원주는 무형실체세계와 유형실체세계의 수수작용에 의한 조화를 상징한다. 그리고 원주 안의 사각은 동서남북 사방을, 네 개의 크고 긴 기둥은 사위기대를 표시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심볼

가정연합 심볼은 1996년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세계평화가정연합 창설대회를 기해 세계평화가정연합 심볼로 고안된 것이다. 참부모님께서 1997년 4월 8일 교회 명칭을 ‘세계



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바꾸면서 이 심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심에 따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심볼로 사용하고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심볼은 ‘하늘부모님을 중심한 참가정’의 이념과 철학을 시각적,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참아버님께서 모든 기본요소들을 직접 창안하시고, 또 그 요소들의 배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도안 과정을 일일이 주관해 주셨다. 예를 들면 3대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개념에서부터 태양 빛줄기의 크기와 모양에 이르기까지 모두 지시해 주셨다.

하늘에 밝게 빛나는 태양과 그 바로 아래 할아버지(왼쪽)와 할머니(오른쪽), 아버지(중간의 오른쪽에 등을 돌리고 선 위치)와 어머니(중간 왼쪽에 등을 돌리고 선 위치), 그리고 아들(아래 오른쪽)과 딸(아래 왼쪽) 3대가 손에 손을 마주잡고 원형을 이루어 둘러선 중심자리에 참사랑의 상징인 하트모양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전체의 둘레를 수수작용 표시의 화살표가 원형으로 감싸고 있다.

가정연합 심볼은 ‘하늘부모님과 참사랑을 중심한 참가정이 참우주의 근본’임을 나타내고 있다. 즉 하늘부모님을 상징하는 태양 아래 참사랑을 중심으로 3대의 가정이 하나되어 있는 모습에서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의 의미를 새길 수 있다. 그리고 이 참가정권을 감싸고 주고받는 원 둘레는 ‘참가정을 중심으로 화동하여 영원히 통일된 천주’를 뜻한다.

심볼의 사용

참부모님께서 1997년 4월 8일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중앙수련원에서 개최된 세계지도자회의에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와 ‘세계평화가정연합’의 두 기구를 통합하고 명칭을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으로 명하였다.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은 참부모님께서 1996년 11월 1일 남미의 우루과이에서 세계평화가정연합 정착과 탕감해소 선포식을 하심에 따라 섭리적으로 탕감의 시대가 지나가고 하늘부모님 주관권의 세계가 구체적으로 정착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한 종파나 궁극적으로는 종교의 단계까지도 넘어서서 본연의 가정을 중심삼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이 정착해야 하는 섭리권에 들어왔기 때문이다.